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9월 11일)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초심으로 중생제도 진력하길" 조계종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이 10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비구 스님 67명이 대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36명이 혜덕 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납 20년 이상으로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조와 시주 은혜를 잊지 않고 초심으로 중생제도에 진력하라"고 당부했다. 대덕 · 혜덕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머리를 낮추고 초심을 되새긴다.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시대 맞게 종단 포교 시스템 정비한다

20년 만의 정비, 조계종 포교법 개정안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단 포교법이 포교원 체제 정비와 포교 의무 고시 등을 골자로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포교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친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포교법 개정안은 2000년 3월 포교법이 공포된 이후 그동안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다변화된 포교환경에 맞는 포교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교원은 법 개정작업을 이어왔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재발의 된다.

사찰 포교사 활동 진흥될까

먼저 이번 포교법 개정안에서는 포교사의 정의, 사명, 자격,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종무원의 포교사 자격 취득 의무 대상도 일부 변경했다. 5000여 명이 넘는 포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사찰에서의 활동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와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이 포교사를 1인 이상 두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포교사단 관계자는 "사찰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사의 사찰 활동에 대해서는 스님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며 "포교법 개정 이후 포교 의무에 대한 신도관리 연계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교원 체계, 법적 뒷받침 박차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특히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 내 포교국과 신도국, 포교연구실의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 명문화했다. 종헌에 명시된 위원회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연구위원회로 구분했다.

포교사 사찰 활동 구체화
전법단, 종법기구로 격상
기존 전법활동 근거 확충
입법예고 · 의견수렴 거쳐
오는 11월 종회서 재발의
행정력 강화 법안은 과제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20년 만의 전면개정은 포교 현실에 맞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법포교의 근거를 갖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종책 실천 체제 구축 과제로

포교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어 온 포교종책 실천 체제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법단의 종법기구화이다. 전법단은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조직,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전법단이 종단 직속기구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전법지원단과 전법후원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가섭 스님은 "종법기구로 격상된 전법단은 현장 스님들의 활동 근거가 마련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법단 외에도 포교원이 구체적으로 일선사찰에서 종책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교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이 연 1회 이상 교구 및 사찰 신도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게 하는 포교 교육의 의무를 규정했다.

사찰 주지나 본사 포교국장 등 스님들의 포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총무원과 교육원 역할이기에 신도교육에 대한 역할만 제한 받은 것이다. 또한 일선 사찰과 포교원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포교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 교육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에서 실질적인 포교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를 다른 사찰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권한 또한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법단 외에도 포교행정력 강화를 위한 제도나 추가 법안이 삼원 협의를 통해 제정되는 등 강력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 문화재 윤장대 보물서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국보 승격 예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24건으로, 예천 용문사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되면 지난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데서부터 비롯됐으며,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이었던 김보당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응 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후 대장전과 윤장대는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동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天啓 午年, 1625)' 묵서명과 건축 양식으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이면서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천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이라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예천 용문사 윤장대는 고려 초 중국 송대(宋代)의 전륜장 형식을 받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영동 영국사와 금강산 장안사 등에도 윤장대 설치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만이 유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846년 동안 그 형태와 기능을 이어오며 불교 경장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대장전과 통합 승격 추진
건축물 국보 지정 8년만
국보 윤장대 탄생도 처음

윤장대는 대장전 내부 양쪽 옆면 칸에 좌우 대칭적으로 1좌씩 설치돼 있으며, 8각형의 불전 형태로 제작돼 중앙의 목재기둥이 회전축 역할을 한다.

두 성보의 국보 승격 이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불교 경장 건축의 특성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다"면서 "윤장대는 불교 경전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흔치않고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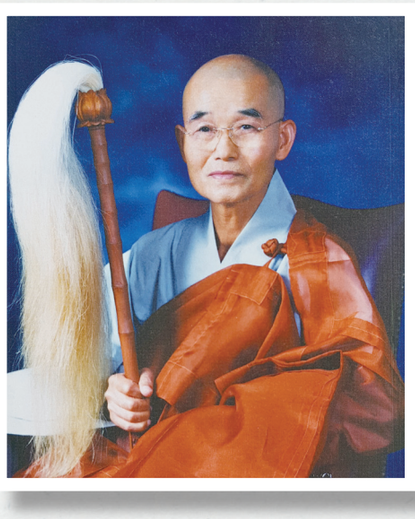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예천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 조성된 동 · 서 윤장대. 보물 제684호다. 보물 제145호인 대장전과 통합돼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혜암대종사 수행도량 통도사 극락암 순례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하신 혜암대종사께서는 출가이후 평생토록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시며 고행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에서는 혜암대종사의 탄신 100주년(2020년)을 기념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수행도량을 찾아서 봄·가을 순례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통도사 극락암**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제5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일시와 장소 안내

■ 출 발 일 : 양력 10월 26일 토요일
■ 출 발 지 : ①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 오전 6시
② 조계사 앞 : 오전 6시 50분
③ 강남 뉴코아 백화점 앞 : 오전 7시 20분
■ 동 참 금 : 5만원 (점심공양 제공)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5902-01-626693
예금주 이유승(만법회)
■ 문 의 : 순례단 사무국장 이유승
010-4509-7308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법**